

# 포털 사이트의 학술정보 검색 개선 방안 연구<sup>1)</sup>

## - 사전 서비스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

### Study on Improvement of Research Information Search in Portal Site

양창진, 한국학중앙연구원, uridul@aks.ac.kr

Yang Chang-j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단순한 검색엔진을 넘어 네티즌들이 향배하는 사이버스페이스 그 자체를 의미할 정도로 영역과 개념이 확대되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도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서비스하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한다. 그동안 포털의 검색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양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검색의 질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전문 학술정보 검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제어 사전 서비스와 연계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학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시범적인 시도이다. 즉, 검증되고 압축적으로 정리된 사전의 표제어와, 해당 표제어를 키워드로 하는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같이 연계시킴으로써, 사전을 검색할 때 연구 성과까지 검색할 수 있게 하여, 검색의 효율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 문제의 제기

한국의 인터넷 환경에서 포털 사이트<sup>2)</sup>가 등장한 이래 이제 포털은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는 단순한 검색엔진이 아니라 이용자가 활동하는 가상공간(cyber space) 그 자체를 의미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과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털은 인터넷을 향배하는 사람들의 출발지였다. 출발 후 어디

로 갈지는 누구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상당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키고 포털에 접속하여 그 날의 뉴스를 검색하고, 포털이 제공하는 메일 서비스를 통해 자기에게 배달된 메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심지어 근무 중에도 수시로 포털을 들락거린다. 포털은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목적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자도 마찬가지이다. 필요로 하는 학술 정보도 서비스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포털을 많이 이용한다. 연구자들이 포털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검색 서비스 때문이다. 여기서 포털의 생명은 검색 기능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포털의 검색 기능에 대한 연구는 얼

1)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년도 정책과제 “한국학 연구성과 DB 및 연계 서비스 구축 연구”의 한 부분인 한국학 주제어 사전 구현 방법론을 보완정리한 것이다.

2) 이하 “포털”로 약칭하며, 여기서 “포털”로 지칭하는 것은 따로 언급하지 않으면 네이버를 의미한다.

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시해 줄 것인가, 도서의 목록뿐만 아니라 본문까지 검색할 수 없을까<sup>3)</sup>, 대학도서관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은 없을까<sup>4)</sup> 등 주로 많은 소스를 검색할 수 있게 하는데 집중되었다. 검색의 양적인 면에 대한 관심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질적인 측면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sup>5)</sup>, 태그 검색(Tag Search)<sup>6)</sup>, 토픽맵(Topic Map)<sup>7)</sup> 등은, 검색 결과의 수량을 중시하는 추세에서 질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이 논문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전문 학술 정보 검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범적이나마 “주제어 사전(keyword dictionary)”과 연계 서비스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적인 온라인 사전과의 연계를 모색해 볼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전 구성은 유사하기 때문에 범위를 좁혀 필자가 주로 관계하는 “한국학 주제어 사전”과의 연계 서비스 방안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여기서 도출된 결과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학문 분야별 사전과 연계 서비스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 2. 포털의 학술정보 서비스 현황과 문제

### 2.1 포털의 학술정보 서비스 현황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포털은 일반 교양 지식에서부터 연구자에게 필요한 전문 학술정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보를 망라한 종합 시장과 같다. 검색용 색인만 가지고 있는 구글(google) 등의 외국 포털들과 달리 자체 콘텐츠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어서 한 번 포털에 들어 온 이용자는 벗어나기 힘들다. 포털이 여러 가지 유인 수단을 동원하여 들어 온 이용자를 밖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포털 네이버(Naver)를 예로 들어 검색 결과를 보면 스폰서링크, 파워링크, 플러스링크, 사전, 지식인, 비즈사이트, 사이트, 이미지, 동영상, 블로그, 카페, 웹문서, 뉴스, 전문정보, 지도, 책 등의 여러 섹션으로 나누어 검색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용자를 붙잡아 둔다. 이러한 종합시장과 같은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 이중에 이 논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것은 “전문정보”이다. 네이버 이외의 포털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전문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서는 서비스 제공 주체에 관계없이 “전문정보”로 통칭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2 포털의 학술정보 서비스의 문제점

포털의 첫 화면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결과가 각 정보 섹션별로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만 건이 나오기도 한다.<sup>8)</sup> 대

3) 본문(Full-text) 검색에 대해서는, 이용준, 「출판 잡지 콘텐츠의 본문검색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5호, 한국출판학회, 2008.; 이용준, 「도서본문검색 서비스의 현황과 발전방안- 네이버와 교보문고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13집, 2010년 2월, 동서언론학회, 37~60쪽 참고.

4) 박소연, 「민간 포털의 책, 전문정보 서비스와 대학도서관 서비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9년 9월, 181-19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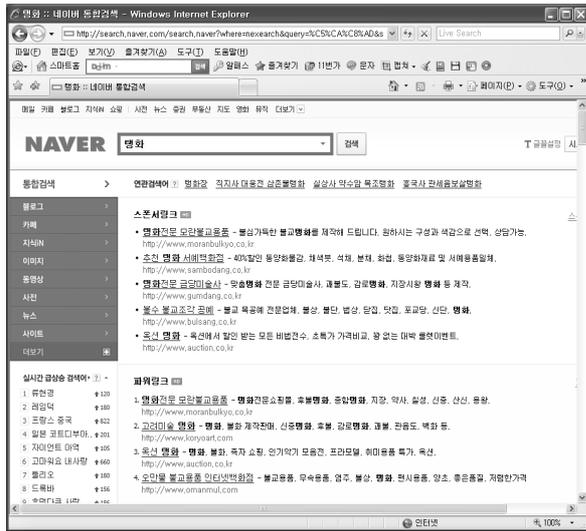
5) 시맨틱 검색에 대해서는, 전도현, 김태수, 「시소러스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9., 155~176쪽.; 박지형, 「시맨틱 웹에서의 관계 기반 정보 검색에 관한 연구 및 구현」, 2008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참고.

6) 태그 검색에 대해서는, 김은희, 「사용자 태그와 중심성 지수를 이용한 블로그 검색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3., 61~77쪽 참고.

7) 토픽맵에 대해서는, 남영준, 「토픽맵을 이용한 시소러스의 구조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9., 37~53쪽 참고.

8) 검색 결과를 종류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는 서비스를

부분의 포털 이용자들은 이처럼 포털의 첫 화면에서 검색을 시작한다. 그런데 연구자들이 많이 찾는 전문 학술정보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문정보에서 특정 주제어를 검색하면 수많은 자료 목록이 결과로 제시된다. 예를 들어 “탱화”를 검색해 보았다. <그림 1> 처럼 위에서 말한 16개 섹션으로 구분되어 각 섹션마다 “탱화”와 “탱화(幀畫)”라는 단어가 포함된 정보들이 제시된다.



<그림 1> 포털에서 “탱화” 검색 화면

그런데 <그림 1>에서 보듯이, “탱화” 관련 “연구 정보”는 “첫 화면”에 보이지 않는다. 검색 결과가 많을 때는 거의 최하위인 14번째 섹션에 제시된다.<sup>9)</sup> 여기에 첫 번째 문제점이 드러난다. 학술정보는 검색 결과 순위가 매우 낮아 원하는 정보를 찾아 가는 경로가 멀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전문정보 섹션은 이용자의

이용자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와 다른 형식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google) 등의 외국 서비스는 국내에서 호응을 받지 못했고, 결국 이들도 국내 포털들과 유사한 식으로 분류하여 제시해 주는 서비스를 하기에 이르렀다.

9) 네이버 외의 다른 국내 포털들도 정보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방법은 거의 같다.

시선을 끌지 못하여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 학술정보가 “전문정보” 섹션에 있음을 알고 있는 연구자는 화면 하단으로 쪽 내려가서 바로 전문정보 섹션으로 갈 수도 있다. 포털들은 전문정보 검색 섹션을 북마크(bookmark)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독립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나, 이런 방식을 애용하는 이용자는 드물다.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포털 첫 화면에서 모든 검색을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연구자들은 포털에서 검색할 때 원하는 정보가 수많은 다른 정보 속에 묻혀버리는 문제에 직면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정보가 포털에 집적되기 때문에 검색어에 대하여 수천 건의 결과가 제시된다. 실제로 포털 네이버에서 “탱화(幀畫)”를 검색해 보았다. 각 섹션별로 수많은 정보들이 제시된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학술정보이다. 14번째 섹션인 전문정보로 이동해 보면, 전문정보 하나의 섹션에서만 <표 1>과 같이 465건이 검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465건도 적지 않은 정보이다. 보다 일반적인 검색어라면 검색 결과는 훨씬 더 많아진다.<sup>10)</sup>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검색 결과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셋째, 단순히 찾고자 하는 검색어가 들어있기만 하면 찾아 주기 때문에 정보의 정확도 떨어진다. 즉 검색어와 관련이 없어도 해당 단어가 들어 있으면 검색 결과로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해당 검색어와 관련이 있는 정보라는 점에서 이것은 포털 검색이 가지는 단점이 된다.

10) 실제로 보다 일반적인 검색어인 “생리학”을 검색하자 전문정보에서만 4,600건 이상이 검색되었다.

<표 1> 포털 전문정보의 “탱화” 검색 건수

중분류	소분류	비고
학술자료(116)	문화예술 (51)	○
	인문과학 (48)	○
	공학 (7)	
	사회과학 (6)	
	자연과학 (3)	
	의약학 (1)	
특허/KS(12)	특허실용 (12)	
리포트(334)	문화자료 (245)	○
	대학리포트 (89)	
계 (465)	○는 “탱화” 검색이 의미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야	

### 3. 주제어 사전과 학술정보의 연계

#### 3.1 주제어 사전

사전(辭典, dictionary)은 "어떤 범위 안에서 쓰이는 낱말을 모아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하여 싣고 그 각각의 발음, 의미, 어원, 용법 따위를 해설한 책"<sup>11)</sup>이다. 즉, 사전은 표제어와 그 표제어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필자가 제시하는 주제어 사전의 구성은 일반적인 사전과 약간 다르다. 주제어 사전은 학술정보와의 연계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전의 “압축성”과 학술정보의 “신뢰성”을 결합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우리 학계에서 논문 저술시 기본적으로 5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를 같이 제출한다. 그러나 이 주제어는 특별한 규칙 없이 논문 집 필자가 나름대로 정한다. 따라서 같은 범주의 주제어라 하더라도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리한다.<sup>12)</sup> 즉, 성리학(性理學) 관련 논문의 키워드

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를 정리할 때, 어떤 이는 정주학(程朱學), 또 어떤 이는 성리학, 또 어떤 이는 유학(儒學)으로 정리하여 수록하기도 한다. 사실 모두 관련되거나 거의 같은 용어들이다.

주제어 사전은 이러한 키워드를 모아 대표어로 쓰일 표제어를 정하고 이 표제어를 중심으로 하여 정의(definition)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전 형식으로 정리하고 나머지는 동의어나 관련어로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해당 주제어와 관련된 핵심적인 연구성과 목록을 같이 정리하는 것이다. 이 연구성과 각각의 목록은 고유 ID를 매개로 하여 별도의 학술 연구 성과 DB에 구축되어 있는 원문 자료와 연계하도록 한다. 조선조 “성리학”을 예로 들어 보면, 용어의 정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성리학”을 표제어로 하여, 한글, 한자, 영문 순으로 표제어를 정리한다.
- ② 유교(儒敎), 유학(儒學), 정주학(程朱學), 성명학(性命學) 등은 관련어로 정리한다.
- ③ 주제어 사전을 구성하기 위해 주제어 분류를 표준화 한다. 성리학을 예로 들면, 한국학 > 종교학문 > 성리학 순으로 분류한다.
- ④ 정의(definition)와 설명(explanation)을 추가 한다.
- ⑤ 주제어와 관련된 권위 있는 연구 자료 목록을 같이 제시하고, 해당 목록에 부여된 UCI(Universal Content Identifier)<sup>13)</sup>를 매개로 하여 해당 원문 정보와 연계한다.

이를 XML 형식으로 정리하면 <표 2>와 같

12) 이춘실 등도 의학분야 논문 분석을 통해 주제어 선정이 저자들의 주관에 많이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춘실·문혜원, 「한국의학학술 논문의 저자선정 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3호, 2000년 9월, 109-124쪽.

13) 모든 온라인 콘텐츠에 부여하는 고유 식별자로서 한국형 URN(Uniform Resource Name) 식별체계이다. 정보 자원을 위치와 관계없이 식별하고 영구적으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전산원이 개발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관리하고 있다.

<표 2> 한국학 주제어 사전 구성의 예

```

<?xml version="1.0" encoding="utf-8"?>
<항목>
  <메타데이터>
    <표제어>
      <한글>성리학</한글>
      <한자>性理學</한자>
      <영문>Neo-Confucianism</영문>
    </표제어>
    <관련어>유학(儒學), 정주학(程朱學), 성명학(性命學)</관련어>
  </메타데이터>
  <내용>
    <정의>
    중국 송나라·명나라 때에 주돈이(周敦頤), 정호, 정이 등에서 비롯하고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
    </정의>
    <설명>
    도학(道學)·리학(理學)·성명학(性命學),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한다. 유학(儒學)은 중국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상대(上代)에는 단순한 도덕사상이었으며, 대표적 인물에 공자와 맹자가 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천하를 주유(周遊)하면서 인(仁)과 예(禮)를 설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에 돌아와 육경(六經:詩·書·禮·樂·易·春秋)을 제자에게 가르치며 ... ..
    </설명>
    <관련 연구>
      <논저 id="G002+AKS-RIS00000001">김기현, 『주자 성리학의 공부론 중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18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9.</논저>
      <논저 id="">조창열, 『16C초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의 특징(特徵) -화담과 회재의 성리학 사상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8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논저>
      <논저 id="">.....</논저>
    </관련 연구>
  </내용>
</항목>
  
```

다. XML 형식으로 정리된 문서를 보면, 맨 마지막의 <관련연구>의 하위 요소로 제시된 <논저> 요소를 개별 논지만 구분하였고, 논저의 하위 요소는 자세히 세분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저> 요소를, <저자>, <논저명>, <학술지> 등의 하위 요소로 세분하여 구성할 경

우, 해당 저자의 논문만 따로 모아 보거나, 해당 학술지 수록 논문만 따로 모아 보는 등의 정보 검색도 가능하다.

### 3.2 학술정보와의 연계 결과

포털의 사전과 학술정보 연계 효과를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가상으로 구성해 보았다. 포털에서 “성리학”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에 “성리학”을 포함하는 결과가 다양한 섹션에서 검색된다. 이 때 전문정보가 아닌, “사전” 섹션으로 가서 검색 결과를 살펴본다. “한국의 성리학”, “조선의 성리학”, “성리학” 등이 검색된다. 여기 까지는 포털의 일반적인 검색방법과 동일하다. 다음에 “성리학”을 선택하며 「표 3」과 같은 형식의 사전 내용이 제시된다.

[내용]까지는 일반적인 사전과 형태가 유사

된다. 이러한 사전 서비스는 별로 시도된 적이 없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것이다.

### 3.3 사전과 학술정보 연계의 장점

포털에서 사전과 학술 정보를 연계 서비스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첫째, 정보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사전은 그 속성상 가장 검증되고 압축적으로 정제된 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섹션이다. 포털이 제공하는 각종 사전들을 보면 권위 있는 연구기관이나 유명 사전 출판사들이 제공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점에서 사전은 그만큼

<표 3> 가상으로 본 포털의 사전 검색 결과

<p><b>성리학[ 性理學, Neo-Confucianism ]</b></p> <p>[정의] 중국 송나라·명나라 때에 주돈이(周敦頤), 정호, 정이 등에서 비롯하고 주희가 집대성한 유학의 한 파.</p> <p>[내용] 도학(道學)·리학(理學)·성명학(性命學), 정주학(程朱學)이라고도 한다. 유학(儒學)은 중국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상대(上代)에는 단순한 도덕사상이었으며, 대표적 인물에 공자와 맹자가 있다. 공자는 춘추시대의 어지러운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천하를 주유(周遊)하면서 인(仁)과 예(禮)를 설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향에 돌아와 육경(六經:詩·書·禮·樂·易·春秋)을 제자에게 가르치며 도리(道理)를 후세에 전하였다. … …</p> <p>[관련어] 유학(儒學), 정주학(程朱學), 성명학(性命學)</p> <p>[관련연구]</p> <p>○ 김기현, 「주자 성리학의 공부론 중 함양에 관한 연구」, 『윤리교육연구』 제18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09. ▶ 학술논문 원문정보</p> <p>○ 조창열, 「16C초 조선성리학(朝鮮性理學)의 특징(特徵) -화담과 회재의 성리학 사상을 중심으로」, 『한문고전연구』 18권,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 학술논문 원문정보</p> <p>○…………… ▶ 학술논문 원문정보</p>
--

하지만, [관련연구] 부분은 다른 사전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이 목록을 클릭하면 연계된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즉 포털 검색-> “사전 섹션”에서 확인 -> 관련 표제어(주제어) 확인 ->관련 학술 연구정보 확인의 순서를 거쳐 학술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신뢰성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sup>14)</sup> 때문에 이 사용자가 포털을 이용할 때 “블로그”나 “카페”,

14)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사전들의 경우, 국어사전은 국립국어원, 영어사전은 두산동아, 백과사전은 두산동아, 고전용어사전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전 편찬 출판사들이 제공했다.

“지식인”의 정보는 참고 정보로 이용할 뿐, 검증 없이 학술 논문에 인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전”에 수록된 정보는 누구나 믿고 활용하며 논문에 인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키워드 사전에 수록된 관련 연구 자료는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정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포털에서 “사전”은 검색 결과의 상위에 위치한다. 네이버에서 “탱화”를 검색한 경우 사전은 4번째 섹션에 위치했다. 이것은 탱화라는 용어가 각 섹션에서 골고루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오점수(頓悟漸修)”와 같이 쉽게 접하기 힘든 불교 학술 용어를 검색할 때, 사전은 2번째 섹션에 제시된다. 이렇게 사전은 대부분의 경우 검색 결과의 상위 섹션에 위치한다. 그만큼 이용자의 시선을 끌 확률이 높아진다.

셋째, 잉여 검색 결과의 수를 최소화함으로써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전 섹션에서 제시되는 검색 결과는 검색어와 “직접 관련된” 콘텐츠의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른 섹션에서는 해당 검색어가 들어간 콘텐츠를 무작위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술 논문의 키워드를 표제어로 하는 사전에 학술 자료를 연계시키면 해당 검색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보를 최소화함으로써 정보 검색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넷째, 검증되고 신뢰성이 높은 연구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다. 포털 검색 결과로 제시되는 일반적인 학술정보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 성과들을 정리하여 해당 주제어에 대한 사전 검색의 결과와 같이 제시해 주면 해당 자료의 권위와 신뢰성도 높일 수 있다.

다섯째, 사전 구축을 위해 주제어를 정리하는 과정에 해당 분야 주제어의 표준화 및 시소러스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사전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표제어에 대하여 분야 분류와 해당 표제어의 동의어 등을 같이 포함하게 된

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특정 분야의 시소러스로 확장할 수 있다. 이 시소러스는 정보 검색 엔진에 탑재하거나, 해당 분야의 각종 연구 주제를 분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 4. 결론

그동안 우리나라 포털의 검색 기능은 얼마나 많은 정보를 검색 결과로 제시해 줄 것인가 하는 양적인 면에 관심을 두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검색 프로그램의 개선을 통해 또는 새로운 자료 구조의 개발을 통해 검색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다각도로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검색의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 논문은 포털에서 제공하는 전문 학술정보 검색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동시에 새로운 자료 구조를 사전 콘텐츠에 적용하여 학술정보 검색 기능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시범적인 시도이다.

포털에서 제공하는 학술정보는 수많은 일반 정보 속에 묻혀서 검색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시야에서 멀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검색자의 눈에 쉽게 포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늘 검색 결과의 상단에 위치하는 “사전” 콘텐츠와 전문 학술정보의 연계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검증되고 압축적으로 정리된 사전에 특정 표제어를 설명하는 정보와 함께 해당 표제어와 관련된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같이 정리하여 상호 연계시키면, 사전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술 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포털이 인터넷 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포털에서 제공되는 학술정보 검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하나의 시범적인 시도이다.

## 참 고 문 헌

- 곽승진, 「전문 포털 사이트 구축에 관한 연구」, 『제6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9년 8월.
- 김은희, 「사용자 태그와 중심성 지수를 이용한 블로그 검색 성능 향상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7권 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10.3.
- 남영준, 「토픽맵을 이용한 시소러스의 구조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2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5.9.
- 박소연, 「민간 포털의 책, 전문정보 서비스와 대학도서관 서비스」,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 한국문헌정보학회, 2009년 9월.
- 박소연·이준호, 「국내 주요 검색 포털들의 백과사전 서비스 비교 평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2호, 2006년 6월.
- 박지형, 「시맨틱 웹에서의 관계 기반 정보 검색에 관한 연구 및 구현」, 2008년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용준, 「도서본문검색 서비스의 현황과 발전 방안- 네이버와 교보문고를 중심으로」, 『동서언론』 13집. 2010년 2월, 동서언론학회, 37~60쪽 참고.
- 이용준, 「출판·잡지콘텐츠의 본문검색에 대한 연구」, 『한국출판학연구』 통권 제55호, 한국출판학회, 2008.
- 이춘실·문혜원, 「한국 의학학술 논문의 저자선정 주제어와 MeSH 용어의 비교 분석」, 『한국정보관리학회지』 제17권 3호, 2000년 9월.
- 전도현·김태수, 「시소러스를 기반으로 한 온톨로지 시스템 구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제20권 제3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3.9.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2008.
- www.naver.com, 2010. 6.
- www.daum.net, 2010. 6.
- www.nate.com, 2010. 6.
- www.paran.com, 2010. 6.